

대상(주)

오라클 클라우드 통해 고성능의 운영 시스템 관리 및 효율적인 프로젝트 환경 구성

“대상(주)은 온프레미스 및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도입해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하였다. 또한 효율적인 IT 운영을 통해 제품 개발 관련 10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 확장도 가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품의 출시 속도를 단축시키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 광문교, 이분부장, 대상주식회사



www.daesang.com

회사 소개

대상(주)
(Daesang Corporation)
Seoul, Korea
www.daesang.com

산업군

Consumer Goods

연매출

US\$2.5 Billion

직원 수

5,000명

도입 제품

- Oracle Public Cloud Machine X5

도전 과제

-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최소화해 애플리케이션의 속도를 높이고자 했다.
- 시스템의 CPU, 메모리, 스토리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 노후화된 기존의 하드웨어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성능 및 안정성 이슈를 개선하고자 했다.

도입 효과

-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레이턴시를 최소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민첩성을 향상하였다.
-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CPU, 메모리 등의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여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시스템의 유연성 및 확장성을 확보했다.
-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한 번에 10가지 이상의 프로젝트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돼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생산성을 향상하였다.
-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으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노후화된 하드웨어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 하드웨어 모니터링 및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장애 발생 시 문제점을 신속히 해결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였다.

DAESANG

대상주식회사

대상주,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 도입 통해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 향상, 효율적인 IT 운영 관리 환경 구성

대상주는 1956년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설립돼 세계 일류의 발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기업이다. '청정원과' 중가집' 브랜드로 대표되는 종합식품사업, MSG와 라이신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발효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는 바이오 사업, 녹색성장을 위한 신소재 개발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전분당 사업, 콜로렐라와 뉴케어 등 건강식품 사업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식품 문화를 선도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도 품질과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 40여 개 해외 거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또한, 대상주는 <건강한 식문화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이라는 기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인간, 고객, 가족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이념을 실행함으로써 백 년 기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다.

대상주는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도입해 노후화된 하드웨어 장비로 인해 발생하는 높은 유지보수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 또한 효율적인 IT 운영이 가능해져 시스템의 성능 및 안정성을 향상하였다. 이를 통해 제품 개발 관련 10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 중 거쳐야 하는 테스트 과정을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돼, 제품의 출시 속도를 단축시키고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오라클 선택 이유(Why Oracle)

“오라클 엑사데이터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성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라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고, 이에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엔지니어드 시스템인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선택하게 됐다. 또한, 추가 서버 구매 비용 없이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했다.”

구축 과정(Execution)

대상은 2017년 5월 전사의 모든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에 탑재했다. 2개월 간 파일럿 테스트를 거친 후 7월에 고라이브(Go-live)했다.

